

## ‘미래대응기금’ 신설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### <보도내용>

- 2026.6.28. 매일경제는 「[단독] 초과세수 일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, 세수펄크 대비한 ‘재정 댐’ 마련 검토」 기사에서,
  - “정부는 막대한 초과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기금 성격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.”며 “미래 산업 투자에 필요한 자원은 공급하되, 초과세수 중 일부를 별도로 떼어 향후 세수결손이나 재정 충격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- 2026.6.28. 서울신문은 「[단독] GPU 사고, 적금 보태고… 반도체 초과세수 AI·청년에 쓴다」 기사에서,
  - “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반도체·인공지능 투자, 청년 등 미래세대 자산형성, 경기 침체기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내용의 기금 운용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.”며 “AI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피지컬 AI와 프론티어급 범용 인공지능(AGI) 개발, AI 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”이고, “청년미래적금과 우리아이자립펀드, K-뉴딜 아카데미 등 미래 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도 담겼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<기획예산처 입장>

-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투자방안 등 초과세수의 구체적 활용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예산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하치승 (hcs017@korea.kr)
	기금운용혁신과	담당자	사무관	박성준 (bbakko0@korea.kr)